

인류와 함께 해온 영적인 생명의 공간 '숲'

생태학적 관점에서 본 나무와 숲

김재일 | 두레생태기행 대표



우리나라 숲이 저장하고 있는 수량은 소양강댐 10개와 맞먹는다. 물은 숲을 지나면서 정화되기도 한다.

지구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역사는 식물의 생성일 것이다. 특히 나무의 등장과 숲의 완성은 자연사의 실질적인 시작이나 다름 없을 정도로 중요했다. 인류 문명 역시 숲이 있는 곳에서 시작됐다. 인류는 숲이 없는 곳에 문화를 전개한 역사가 없다.

숲은 나무들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다. 숲은 서로 다른 생명들이 스스럼없이 어울려 사는 생명공동체다. 생산자(식물)·소비자(동물)·분해자(세균)가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이다. 이렇듯 숲은 다른 생명들과 더불어 하기 때문에 자급자족의 생태계를 이룬다. 그렇지 않은 숲은 이미 숲이 아니다.

숲이 없으면 모든 생명체들이 사라진다. 숲에 기대 살던 새와 곤충들이 사라지고, 이어 야생동물이 사라지며, 나중에는 해양생물도 모두 사라지게 된다. 그 가운데 숲으로부터 가장 많은 공기를 제공받고 있는 인간이 맨 먼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생태계 복원의 공간적 기회를 제공해주며, 새로운 생물의 출현을 가능케 해주는 것도 바로 숲이다.

자급자족적인 생태계의 보고

숲은 영적(靈的)인 환경을 만들어낸다. 숲은 모든 것들이 태어나고 숨을 고르는 생명의 공간이다. 숲을 거부하는 사막이나 양극지방은 사색과 명상을 허용하지 않는다. 오로지 치열한 생존만을 요구할 뿐이다. 도교의 완성체인 신선(神仙)은 곧 '선(仙)=사람(人)+산(山)'이니, 사람이 숲속에 들어가 수련해 얻는 경지다. 불교의 선림(禪林), 총림(叢林)도 출가자들이 숲속에 모여 수행함을 나타내는 말이다.

풍수에서는 물이 빠져나가는 쪽을 수구(水口)또는 파(破)라고 한다. 농경지역에서는 물이 너무 빨리 빠져나가면 흙이 머물지 않고, 가뭄을 쉽게 탄다. 그것을 막기 위해 옛 사람들은 숲을 조성했다. 또 파를 그냥 두면 밖으로부터 샷된 것이 쉽게 들어오고, 안으로부터 재물이 쉽게 빠져나간다고도 했다. 자생풍수는 이렇듯 숲으로써 명당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숲 속에 들어서면 심신이 가뻐해지는 것은 피톤치드(Phytoncide) 때문이다. 피톤치드는 식물이 각종 박테리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발산하는 방향성 물질로, 동물들에게도 소염·방

부·살균·진정 등의 효과가 있다. 그래서 삼림욕을 하면 기분이 상쾌해지고, 몸과 마음의 긴장이 풀리며, 생체리듬을 되찾게 된다.

그리고 숲은 기(氣)를 정화시켜주기도 한다. 기암절벽으로 이뤄진 산들은 기가 강해 그 아래쪽에는 사람들이 살기 어렵다. 이때 옛 사람들은 위로부터 내리쏟아지는 기를 알맞게 순화시키기 위해 마을에 숲을 조성했다. 도시의 악기(惡氣)도 숲을 조성해 정화시킨다.

인간의 환경을 정화시켜주는 숲

숲은 산사태를 막아주는 사방(砂防) 독이기도 하다. 숲이 있기 때문에 비가 웬만큼 와도 흙이 씻겨져 내리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숲으로 해서 토양이 더욱 비옥해진다. 시냇물이나 하천도 절로 솟는 것이 아니다. 숲이 물을 머금고 있다가 조금씩 내보내주는 것이다. 우리나라 숲이 저장하고 있는 수량은 소양강 댐 10개와 맞먹는 180억톤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물은 숲을 지나면서 정화되기도 한다. 숲 속의 물이 깨끗한 이유도 그 때문이다.

숲은 생명체들이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후를 조절해준다. 숲은 지구온난화 속도를 더디게 해주고, 온난화에서 오는 피해를 완화시켜준다. 숲은 도심의 열섬현상을 완화시켜주고, 습도를 쾌적하게 유지시켜준다. 숲은 탄산가스를 흡수하고 수분과 태양에너지를 이용해 '클루코스'라는 유기화합물을 생산해 그 부산물로 산소를 만들어낸다. 1ha의 숲은 탄산가스 16톤을 흡수하고 산소 12톤을 방출한다. 이 산소량은 1년 동안 44명이 숨쉴 수 있는 양이다. 높은 인구밀도에서도 도시인들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도 허파와도 같은 건강한 숲이 가까이에 있기 때문이다.

숲은 소음을 막아주는 방음벽 기능도 해낸다. 소음은 나뭇가지나 나뭇잎에 부딪치면 활동에너지를 잃게 된다. 50미터 폭의 숲은 소음을 10~15데시벨이나 줄여준다고 한다. 5미터 폭의 도시숲은 3미터 높이의 철제방음벽 효과를 나타낸다는 보고서도 있다.

인류는 예나 훗날이나 숲과 함께 인류다. ■

김재일씨는 경북 포항에서 태어나 10여년간 고등학교 국어교사로 재직했다. 그 뒤 언론·문화·환경 운동에 뛰어들어 환경단체인 두레생태기행을 만들어 회장으로 있다. <자연 생태 탐사기> <두레생태기행> 등을 펴냈다.